

# 손흥민, 슬럼프 탈출 골 넣고 마스크 던졌다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이 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셀허스트 파크에서 열린 2022-2023시즌 영국 프리미어리그(EPL) 19라운드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은 뒤 마스크를 벗어 던지며 기뻐하고 있다. 이날 손흥민은 9경기 만에 리그 4호 골을 터트리며 팀의 4-0 대승에 힘을 보탤했다. /연합뉴스

## 토트넘, 팰리스에 4-0 승리 EPL 통산 97골 팀 역대 2위



손흥민(31)이 골 침묵을 깨고 리그 4호 골을 터트리며 팀의 대승에 힘을 보탤했다. 토트넘은 5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셀허스트 파크에서 열린 크리스탈 팰리스와 2022-2023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19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해리 케인의 멀티골과 맷 도허티, 손흥민의 득점포를 엮어 4-0으로 완승했다. 선발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한 손흥민은 팀이 3-0으로 앞선 후반 27분 췌기골을 터트렸다. 손흥민이 리그에서 득점포를 가동한 건 9경기만이다. 지난해 9월 레스터시티전에서 헤트트릭을 작성한 것 외에 리그에서 득점이 없던 그는 부진을 털고 오랜만에 골 맛을 봤다. 이로써 손흥민은 올 시즌 EPL에서 4골 2도움을 기록하게 됐다. 지난해 10월 프랑크푸르트(독일)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경기에서 넣은 두 골을 포함하면 공식전에서 6골 2도움을 올렸다. 안와골절 수술 뒤 얼굴 보호를 위해 마스크를 쓰고 뛰던 손흥민은 직전 애스턴 빌라전을 치르다 이를 벗었고, 이날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경기를 치렀다. 하지만 기다리던 득점포를 쏘아 올린 순간에는 마스크를 또 한 번 벗어 던지고 크게 포효했다. 손흥민은 EPL에서만 통산 97골을 넣어 테디 셰링엄과 토트넘 통산 리그 득점 공동 2위로 올라섰다. 이 부문 1위는 케인(196골)이다. 더불어 손흥민은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나선 자신의 EPL 200번째 선발 출전 경기에서 득점에 성공, 셰링엄, 케인, 애런 레넌에 이어 4번째로 이 기록을 썼다. 공식 도움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는 4호

골에 앞서 3-0을 만든 도허티의 득점에 발판을 놓는 패스를 건네기도 했다. 세 경기 만에 승리를 따낸 토트넘은 리그 5위(승점 33-10승 3무 5패)를 지켰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12위(승점 22-6승 4무 7패)다. 전반에는 두 팀 모두 0의 균형을 깨지 못했다. 답답하던 흐름을 끊고 후반 주도권을 잡은 건 토트넘이었다. 후반 3분 공격 전개 과정에서 손흥민과 힐을 거친 패스를 이반 페리시치가 크로스로 연결했고, 이를 케인이 머리로 받아 넣었다. 앞서 10경기에서 모두 상대에 선제골을 내주며 수비 불안에 노출했던 토트넘이 11경기 만에 선제골을 기록했다. 기세가 오른 토트넘은 후반 8분 케인의 멀티골로 격차를 벌렸다. 힐이 오른쪽 측면에서 찢러준 패스를 받은 케인이 오른쪽 슛을 골대 왼쪽 구석에 꽂아 2-0을 만들었다. 자신의 300번째 리그 경기에 출전한 케인은 통산 198골을 넣어 앨런 시어러(196골)의 'EPL 300경기 최다골' 기록을 넘어섰다. 역대 프리미어리그 100번째, 200번째, 300번째 경기에서 모두 득점한 선수는 셰링엄과 케인뿐이다. 후반 22분에는 케인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절호의 기회를 맞았으나 오른쪽 슈팅이 상대 골키퍼 비센테 과이타에게 막혔다. 아쉬움을 삼킨 손흥민과 토트넘은 뒤이어 찾아온 찬스는 놓치지 않았다. 1분 뒤 손흥민이 페널티 지역에서 간헐 패스가 상대 수비에 맞고 굴절돼 도허티에게 전달됐고, 도허티가 팀의 세 번째 득점을 뽑아냈다. 이어 후반 27분에는 케인의 패스를 거쳐 전달된 공을 손흥민이 페널티 지역에서 왼발로 차 넣어 승리에 췌기를 박았다. 최고의 듀오로 꼽히는 손흥민과 케인은 EPL 총 34경기에서 동반 득점했고, 이는 리버풀의 무함마드 살라흐-사디오 마네(33골) 듀오를 뛰어넘은 리그 최다 기록이다. /연합뉴스

## 이강인 맹활약 ... 마요르카 국왕컵 16강 진출

### 연장 접전 끝 3부 팀에 2-0 승 결승골 발판 놓고 공격에 활력

이강인(22)이 플레이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한 스페인 프로축구 마요르카가 연장전을 벌인 끝에 코파 델레이(국왕컵) 16강에 진출했다. 마요르카는 5일 스페인 폰테베드라의 에스타디오 무니시팔 데 파사로에서 열린 3부리그 폰테베드라와 2022-2023 코파델레이 3라운드(32강)에서 2-0으로 이겼다. 전·후반 90분간 0-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하던 마요르카는 연장 전반에 두골을 몰아쳐 승리를 따냈다. 이날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강인은 후반 시작과 함께 그라운드를 밟아 경기가 끝날 때까지 뛰

었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는 못했으나, 결승골의 발판을 놓는 등 마요르카의 공격에 활력을 더했다. 마요르카는 0의 균형이 이어지자 이강인을 시작으로 후반 20분 아브돈 프라츠, 21분 다니 로드리게스, 31분 베아트 무리키를 차례로 투입했는데, 연장으로 이어진 승부에서 이 교체 카드가 효과를 발휘했다. 연장 전반 7분 마요르카는 기다리던 결승골을 뽑아냈다. 이강인이 왼쪽 측면에서 공을 따낸 뒤 무리키에게 내줬고, 무리키의 패스를 프라츠가 골 지역 오른쪽으로 달려들며 차 넣었다. 이어 7분 뒤 마요르카는 역수 과정에서 패스를 주고받으며 집중한 프라츠의 패스를 무리키가 마무리해 추가 골을 기록, 2-0 승리에 췌기를 박았다. /연합뉴스

## 이강철 WBC 감독, 전력 분석 위해 호주로 출국

### 코치진과 함께 호주프로야구 관전·분석 1라운드 B조 호주 이겨야 8강 진출 가능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야구대표팀을 지휘하는 이강철(56) KT 위즈 감독과 대표팀 코치진이 5일 호주 야구 대표팀 후보 선수 분석 차 호주로 출국했다. 이강철 감독 등 코치진은 오는 9일까지 호주프로야구(ABL) 경기를 관전하며 정밀 분석에 나설 계획이다. 이 감독은 출국 직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호주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며 "호주 역시 한국전에 모든 전력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수들을 면밀히 분석해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야구 대표팀은 WBC 본선 1라운드 B조에서 일본, 호주, 체코, 중국과 경쟁하며 상위 2위 안에 들어야 8강에 진출할 수 있다. 2위 안에 포함되기 위해선 본선 1라운드 첫 경기인 호주전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 이강철 감독은 일찌감치 호주전을 본선 1라운드 분수령으로 여기고 이에 맞춰 선수 선발과 준비 과정을 거쳤다. 이 감독은 "이번 호주 출장은 지난해 11월에 계획했다"며 "이번 주말에 열리는 ABL 경기에 호주 대표팀에 승선할 만한 다수의

선수가 출전한다. 선수들의 유형을 살펴본 뒤 호주전 선발 투수 등을 고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국길엔 진갑용(KIA 타이거즈) 배터리 코치, 정형욱(삼성 라이온즈) 투수코치, 심재학(필리핀 인터콘티넨탈) 코치, 김준기 전력분석위원 등 다수의 코치진이 동행했다. 11일엔 삼성 라이온즈 감독을 역임한 허삼영 전력분석위원과 배영수(롯데 자이언츠) 불펜 코치, 김민호(LG 트윈스) 작전 코치가 호주로 떠난다. 투수, 타자, 포수 등 분야를 망라한 '현미경 분석'을 하겠다는 의지다. 이강철 감독은 "호주에서 어떤 선수가 나올지 몰라서 최대한 많은 선수를 분석하려 한다"며 "단기전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다. 호주엔 다수의 강속구 투수가 있고, 이들이 모두 한국전에 등판한다면 접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호주전은 연장전, 승부차기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많은 상황을 대비하면서 구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강철 감독은 다음 달 미국 애리조나 투수에서 열리는 대표팀 전지 훈련에서 주루 플레이, 작전 등 단기전을 대비한 '스몰볼' 훈련도 하겠다고 전했다. 이 감독은 "박해민(LG 트윈스) 등 야구 센스가 있는 선수들을 뽑은 이유"라며 "대주자, 대타 등이 필요한 상황이 벌어지면 적극적으로 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출전하는 야구대표팀 이강철 감독이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전력분석차 호주로 출국하기 위해 탑승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